

# 장학월보

2011  
제221호(통권440호) **7**

- 장학특집 / 영어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학습클리닉



작품명 :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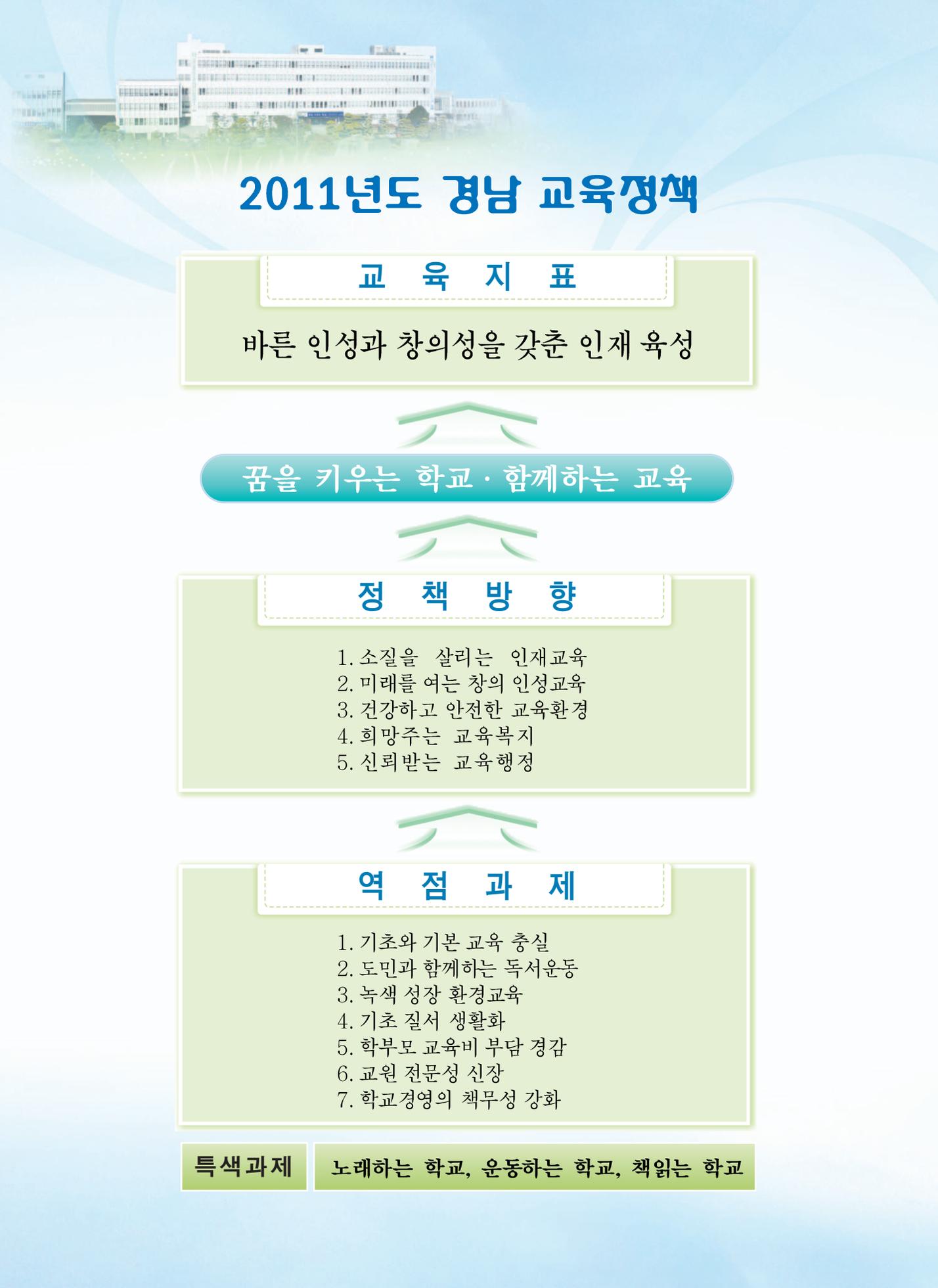
---

---

---

## 박 재 철

- 현) 함안 중앙초등학교 교사
- 제57회 교육주간 사진 공모, 입선, 2009, 교총
- 제59회 교육주간 사진 공모, 동상, 2011, 교총
- 불꽃낙화 사진 촬영대회 최우수상, 은상
- 대한민국 곤충생태체험전 사진전 참가, 2006, 서울 코엑스
- 교원에능경진대회 2등급
- 제1회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진 공모전, 은상, 아름다운 교육신문 [저서]
- 어린이 다카교실 일공육사, 2008



#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7

제221호(통권 440호)



02 기획대담  
08 교육감 동정  
09 장학현장  
10 교육 칼럼  
12 특집 /  
영어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29 좋은 수업 다지기

42 교육정보

47 명품학교, 명품교육

62 전문가 초대석

62 참여마당

69 지상갤러리

- 고영진 교육감 취임 1주년 인터뷰 / 편집위원
- 교육에 희망의 등을 건다 / 김복근
- 경남 영어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 / 임권섭
- 영어교육도 독서교육이다 / 강정
- TaLk 프로그램과의 소중한 인연 / 박선희
- 영어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말하기·쓰기 능력향상 / 한지현
- WEB 2.0 tools를 이용한 영어수업 / 박승훈
- 좋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 / 이광련
- 그림책과 함께 하는 즐거운 수업이야기 / 안민경
- 미술수업 속에서 다양한 영어 자료 찾아 활용하기 / 이진영
-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을 통한 창의성 향상 / 김미연
- 학습목표 진술 / 이동림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경남교육정책 인터넷 방송으로 거듭나다 /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총무담당
-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으로 희망을 키워갑니다 / 김동배
-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꿈키움 사남교육 / 김민정
- ‘별주부전’ 체험활동으로 애항심 가득한 학교 만들기 / 송진영
- 바다를 건너 세계로 향한 꿈을 키운다 / 노오기
- 100년 직장·기술보장학교, 항공기 제작 Meister 육성교육 / 김길진
- 알찬 방향을 위한 학습전략 / 변경오
- 교 원 - 보물섬 사관학교가 심어준 나라사랑 / 장현재
- 학부모 - 아침이 즐거운 아이 / 류수정
- 학 생 - 하늘 / 송일근
- 비상 / 박재철
-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교구서분교장)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8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7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7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고영진 교육감 취임 1주년 인·터·뷰

- ❖ 일시 : 2011. 06. 23(목) ❖ 장소 : 교육감실 ❖ 고 영 진 교육감
- ❖ 장학월보편집위원 : 한영자(편집위원장), 구현숙(편집위원), 윤수영(편집위원)  
김민주(편집위원), 박준일(편집위원)

### 기/획/대/담 - 고영진 교육감 취임 1주년 편집위원과의 대담

취임 1주년 경남교육의 교육정책 기조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실현'의 중간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교 교육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 최우선을 두며, 교육력 향상에 노력한 우수학교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좋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미진한 점은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교육감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된 공약사업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대담자료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자가 별도 구성하였음)

■ 장학월보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 : 먼저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교육 현장도 학생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본질 중심의 교육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주년을 맞이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고영진 교육감(이하교육감) : 숨 가쁘게 지나간 1년여 동안 제가 맡고 있는 교육 분야에 정부의 정책이 잘 반영되면서 그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초 생각했던 공약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살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교육현장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도민들의 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책임을 수반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중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성원해주신 4만여 교육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실현되고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편집위원 : 교육감님 취임 후 경남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약사항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 아시다시피 지난 1년 간 경남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경남미래교육재단, 수학여행비 지원, 독서교육 조례 제정 등 굵직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1년이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독서교육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청 차원의 학교독서교육 조례를 제정해 독서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선진 독서 인프라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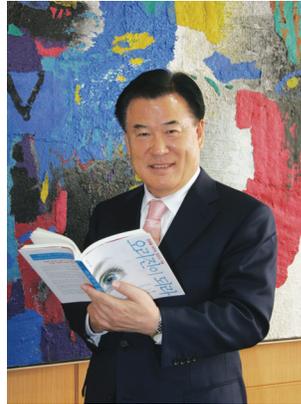
또한 무상 수학여행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44억 8,980만 원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교 6학년들은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으며 미리 다녀온 학생들은 2박3일 기준으로 12만 원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경남미래교육재단입니다. ‘경남의 인재가 대한민국 인재다’라는 마음으로 500억 원 규모의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5월 26일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통과시켰으며,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재단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미래교육 재단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드립니다.

■ 편집위원 : 올해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독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독서조례가 독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 독서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에는 독서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독서연구 지원,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독서권리를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모두가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책 읽는 경남 만들기’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남에서 시작된 독서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독서인프라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편집위원 : 도민을 대상으로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감 : 독서는 사고력, 창의력, 학습습관 형성에 중요한 활동이며, 특정학습과 관련되는 활동이 아니라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도구적 활동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생후 1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각국의 경우 도서관 당 인구 비율이 3,000~6,000명 정도입니다. 이처럼 독서의 강국이 세계의 강국이며, 책 읽기를 통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향상은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요즘 교육계의 벤치마킹 대상인 핀란드 교육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도 바로 독서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학습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민 전체가 책 읽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 편집위원 : 평소 교육감님께서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읽으신 책 중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권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 평소 책읽기를 즐겨합니다. 1주일에 신간 2권은 읽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바쁜 일정으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읽은 책으로는 조벽교수의 「인재혁명」, 강신장의 「오리진이 되라」도 우리 교육을 생각하며 읽은 좋은 책이었습니다.

산문도 좋지만 시도 좋아합니다. 시는 나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나를 발견하게 될,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설문에 있었던 ‘문은 열어야 문이지 열지 않으면 벽이야’ 라는 문구도 마음에 와 닿는 시에서 인용한 문구였습니다.

■ 편집위원 :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목적과 지원방안,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교육감 :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6일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6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재단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제2의 김연아, 빌게이츠 같은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재단에서 매칭 지원하는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제교류사업이나 장학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은 5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100억 원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계획입니다. 출향인사나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성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재단의 정관안과 설립취지서 등을 마련하여 9월 경에 재단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재단설립 허가 신청 및 법인 등기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첫 걸음이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래교육재단 설립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경남 도민의 열망을 추진과정에서 확인한 만큼 기금 확보와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편집위원 :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지역 학생들이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무상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교육감 : 지난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본인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상 학생 전원 참여를 통해 교육격차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혜택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과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혜 대상입니다.

지난 해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학여행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6월에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편집위원 : 지난 3월 경남지역 8개 고등학교가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 교육감 : 물론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비선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잘 가르치는 학교’로 탈바꿈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요소 세 가지를 든다면, 잘 가르치는 교사와 넉넉한 예산,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 사회의 후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는 이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부풀려진 기대감은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넉넉하지만,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기대는 기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편집위원 : 경남이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서 가장 많이 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님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 우리 경남에 자율형 공립고가 1개교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형평성이나 균형감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교과부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제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의제로 제기하여 교과부의 방침 변경을 요청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관께 건의하였습니다. 8개교가 선정된 것은 우리 경남의 학생수와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과부가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그 동안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편집위원 : 경남교육청이 고입 연합고사와 관련해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경남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전국에 비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 먼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방편의 하나로 고입 전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입 수능시험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 비교에서 2010학년도에의 경우 16개 시·도 교육청 기준 언어 16위, 수리가 11위, 수리나 12위, 외국어 14위로 전체 순위 15위로 나타나며, 2011학년도에는 언어 14위, 수리가 12위, 수리나 11위, 외국어 13위로 전체 순위 14위였습니다.

■ 편집위원 : 고입 연합고사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교육감** : 연구용역 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고입전형 방법 개선에 대한 찬성이 68.2%였고 반대가 19.8%입니다. 현행 고입전형은 중학교 간 학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내신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장기간 입시 현상), 중학교 전체적인 학력 저하, 내신성적으로 인한 동일학교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지역에서 중학교 내신성적 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을 사정하는 지역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중학교 내신성적을 적용할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다른 시도지역 보다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심할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 선행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입 선발고사와 관련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충분한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공감의 폭을 넓혀 교육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 **편집위원** : 지난 4월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에 관한 책이 아니라 산에 대한 책을 발간 하였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산은 어떤 의미인지요?

▶ **교육감** : ‘체력이 능력’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등산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등산은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산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산이 주는 넉넉함에서 내 삶의 방향인 봉사를 배웠습니다. 산은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서 남에게 베풀을 나누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 **편집위원** :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하시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교육감** :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재산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우리는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 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모두가 스승이 되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취임 때부터 계획했던 3가지의 조례가 모두 통과되어 진정한 교육복지와 공교육 강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서교육조례, 체험학습에 관한 조례,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례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특색 있고, 내실 있는 경남교육의 모습을 꼭 보여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고정리 : 구현숙 편집위원〉



01—



02—



04—



03—



05—



06—

- 01 경남교육기부 협약체결 및 선포식
- 02 교육행정지도자과정 100기 행사 특강(서울대학교)
- 03 양산희망학교 개교식
- 04 교육과학기술부 주5일 수업제 관련 언론 브리핑 참석
- 05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감사패 수상
- 06 미국 페어팩스교육청 교육 교류협약체결



07



08



10



09



11



12

- 07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소인수유치원의 체험활동
- 08 함안교육지원청 - 제47회 경남 중등학생 종합학예발표대회 (예선)
- 09 경남유아교육원 - 명사초청 학부모 강연회 개최
- 10 김 해 도 서 관 - 책 문화 나눔 장터
- 11 밀양교육지원청 - 밀양교육장배 초·중·고 동아리 축구대회
- 12 창원교육지원청 - '저자와의 만남' 행사 고병헌 초청 강연회

# 교육에 희망의 등을 건다



김복근

경남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민정부는 교육 개혁을 내세우면서 교원을 위협했고, 국민의 정부는 교원에 대한 공개적 질타와 정년단축을 하면서 교원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선생님이라며, 수구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교육이 여론의 도마에서 춤추며 보낸 세월은 상당히 길다. 자녀 교육을 위임한 교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말할 것 없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공교육의 붕괴다. 사회의 안전망은 무너지고, 전통 예절과 관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는 무사와 안일의 풍조가 뿌리 내리게 되었고,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파생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계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사소한 문제로 여론을 제기하여 좌절하게 만들어 버렸다. 학부모나 사회가 교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부 인사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교육을 폄하할 때마다 교원의 자존심과 긍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위기였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동반한다. 상처가 적지 않지만, 우리 교원은 학교에 대한 일부의 굴절된 시각이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 때문임을 안다. 소중한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모의 욕구까지 헤아려야 한다. 숙련된 교사라면 제자에 대한 사랑과 함께 부모의 가슴으로 교단에 서야 한다. 우리 국민은 사회의 어느 지도층보다 학교 선생님의 말을 더 믿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의 말 한 마디, 표정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교원을 믿고 있다는 증좌이다. 교원은 스스로 자긍심을 살려야 한다. 문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극소수 교원에 해당하는 일이다. 모든 교원이 공분하거나 자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회도 교원의 기를 살리기 위해 합의할 때가 됐다. 교원도 인간이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십만의 교원 중에는 문제교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론몰이 식 총체적 공격은 경계할 일이다. 교원을 예사롭게 대하거나 권위를 손상하게 되면 교육은 제로섬 사회가 된다. 문제교원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벌을 주되, 진정한 교원에게는 교원으로서의 권위와 자긍심을 살려주어야 한다. 교원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무거운 존재다. 우리의 자녀가 완전한 인격체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스승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태어나면서 제 혼자서는 서지도 걷지도 못한다. 부모의 양육에 의해 기초적 삶의 방식을 배우다가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교육을 의뢰하여 합리적 교육을 받게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설부른 재단에 의해 막중한 교육의 임무를 가진 교원을 위축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남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교육계가 노력한 결과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 미래교육재단 설립은 조례로 제정되었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학력 향상, 깨끗한 교육 행정 실현으로 신뢰 회복,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구현, 사고나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교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신장,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운영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경남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교원에 의해 실천된다. 따라서 그 중심에 교원을 세워야 한다. 교원의 기를 살려 그들이 신명나게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교원을 스승으로 예우하는 것은 교원만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자녀와 학부모, 나라를 위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교육의 질적 승화와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난마처럼 얽힌 문제도 풀 수 있다. 교육청과 의회, 언론,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선 학교와 교원 양성 기관, 교총과 전교조, 학부모교육연대가 교육공동체로 나아갈, 상생의 교육풍토를 조성한다면 이게 바로 꿩 먹고 알 먹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며, 경남교육의 블루오션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대, 다시 교육에 희망의 등을 건다.



## 경남 영어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



임 권 섭

학교정책과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2010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초·중·고 전체 영어 사교육비는 약 7조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약 21조원)의 33%를 차지해 사교육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의 경제력,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영어능력이 좌우될 우려도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성적 결과 지역별로 우수 학생 비율도 차이가 나, 지역간 영어교육의 격차가 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영어실력은 말하기·쓰기 능력이 듣기와 읽기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학생들은 실용영어(듣기,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과부는 의사소통중심의 실용영어 능력 향상의 걸림돌이 수능의 외국어영역시험이라고 보고, 새로운 체제의 영어능력 시험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것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다. 이 시험은 언어 4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모두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벌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기본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교육 없이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교육비전을 내걸고 2011학년도 경남영어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지난 3월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실용영어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영어교실수업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2011년에 추진하는 영어교육정책을 간추린 것이다.

### 1. 영어교실수업 개선

#### 가. 수준별 영어수업 내실화

초등학교는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중·고등학교는 2개 학급을 최하 3수준으로 나누어 이동수업을 실시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 나. 영어 평가방법 개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말하기, 쓰기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기, 쓰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평가에 다양한 영어 말하기 평가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다.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교과부 요청 및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영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영어전용 교실(영어체험교실) 활용 연구학교를 5개교, 평가방법 개선, 영어교실 수업 개선을 연구영역으로 하는 연구학교 4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 라. 영어 교실수업 개선 연구팀 운영

학교 현장의 교실수업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단위 영어교사로 구성된 연구팀에게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추진하고, 개인적으로는 영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자기계발 연수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 2.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

## 가. 영어교사 연수

심화연수(6개월 파견근무), 대학위탁연수, 국외체험연수, 방학 중 합숙형인 심화직무연수, 원격연수 등을 수준별, 연수자 맞춤형 형태로 연수과정을 다양화하고 있다. 심화연수는 수업실습형(국내 3개월 + 해외 3개월)과 영어능력함양형(국내 5개월 + 해외 1개월)로 구분하고, 집합형, 재택근무형, 사이버형 등으로 개인별로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 나. 영어교사 TEE 인증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확산을 통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영어능력을 인증하고 있는데 능력에 따라 특별교사와 우수교사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다. 특전으로 특별교사는 200만원, 우수교사는 1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 다.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 컨설팅팀 운영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E)을 확산시키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과, 교수·학습 자료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내 전문가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9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연구결과물을 학교에 배부하는 등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 라. 초등교사 영어말하기 연구대회

교사 개인의 영어교과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고, 초등영어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11년 교육연구대회 실시계획에 의거 예선 및 본선대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입상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연구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 3.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국제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약 430여 명의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하여 한국인 교사와 함께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개별 국제전화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집합 및 원격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 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배치 및 활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대학 장학생과의 협력을 통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36명을 배치하고 있다.

####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초등학교의 늘어난 수업시수와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이해 증가한 수업시수를 맡기 위해 2009년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강사는 영어교육 관련 업무 및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 등 영어 관련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 라. 중등영어전용교실(영어체험교실) 구축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환경 조성과 영어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 초등학교에는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고 있다. 영어전용교실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329개교에, 영어체험교실은 지자체 예산으로 119개교에 구축하였다.

#### 마. 국제교류 협력

외국과의 국제교류 행사를 통한 국제적 안목을 함양하고, 결연 가정 간 교환·교류를 통한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미국 페어팩스교육청, 캐나다 필카톨릭교육청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사 및 학생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국제문화교실(CCAP)을 20개교에서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 4. 지역 간 · 계층 간 영어격차 해소 노력

##### 가.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원어민이 미 배치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화상수업으로 도·농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70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주로 정규수업시간에 중·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 나. 새미학습(경남사이버가정학습) 영어교육 서비스 강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새미학습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영어 자율학습 콘텐츠(보충, 기본, 심화과정) 등 많은 유익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초1에서 고1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대비 무료 e-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동시에 의사소통중심의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경남 영어공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공여부는 학교 현장의 영어교사에 달려있다. 영어교실수업 개선은 학교단위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교환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더욱 발전하는 경남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영어교육도 독서교육이다



강 정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 1. 영어교육 왜?

#### 21세기가 요구하는 필수 능력은 무엇일까?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직장인의 기본적 기능요소가 되었다.

2011.4.20. 아시아투데이 - 김정철 잡 코리아 HR사업본부 본부장 “직 군을 떠나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어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2011.4.20. 아시아투데이 - 삼성전자 홍보팀

변화와 소통, 협업이 키워드인 미래사회는 해외기업이나 국가와의 합작에 의한 국제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국제화 사회에서의 외국어 사용 능력은 필수 능력이다.

### 2. 영어교육 어떻게?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재상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한정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던 스페셜리스트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모든 영역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멀티플레이어다.

멀티플레이어란 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창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인재, 전문지식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기개발을 하는 인재,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 직업의식·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한 협력적인 인재인 것이다.

이처럼 미래사회는 영어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진정한 인재 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영어교육 변해야 산다

#### 영어교육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영어공교육이 변하고 있다. 2012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가칭 NEAT가 도입된다. 읽기,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영역을 포함한 국가 영어 인증평가이다. 실용적 영어 말하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NEAT의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공교육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 4. 영어교육도 독서교육

#### 영어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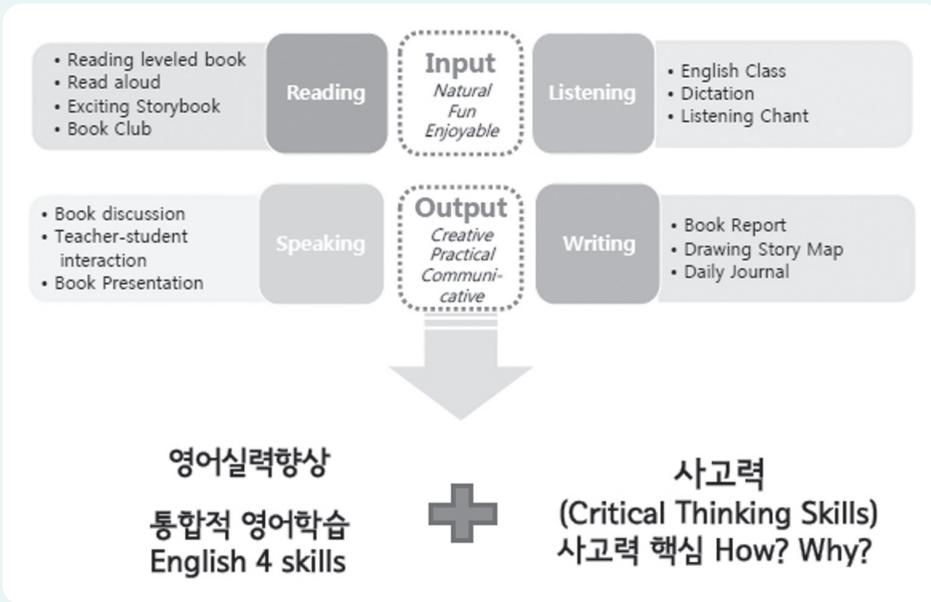
기존의 영어교육은 읽고 듣기 중심의 문제풀기 실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진정한 영어 사용자가 아닌 영어관광객(Stay as an English tourist)으로 머물고 말았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인 NEAT에서는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어교육 환경이 변화된 영어교육 수요를 잘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09년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설치된 초등영어 전용교실은 인테리어를 이국적으로 꾸미는 데만 돈을 써 ‘속빈 강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 상황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 필요한 간단한 생활영어를 익히는 활동 중심의 영어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깊은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롭게 부각된 영어교육 방안이 영어도서관을 활용한 영어교육이며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어독서교육은 기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경제성, 책과 컴퓨터의 동시운영이 가능한 영어 학습 시스템의 효율성,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한 차별성으로 기존 영어교육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	효율성	차별화
기존 도서관 활용	책과 컴퓨터 동시 운영	우수한 콘텐츠 기반

### 영어독서교육이 영어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영어독서교육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등, English 4 Skills의 통합적인 영어학습으로 사고력(Critical Thinking Skills)을 기를 수 있다.



21세기의 인재는 창의력,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성을 종합적으로 겸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영어능력도 창의적 사고력이 겸비된 멀티플레이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독서교육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재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영어교육과 독서교육이 융합된(Convergence) 영어독서교육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첫째, 독서는 변하지 않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쓴 위대한 선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독서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동서고금의 위인들을 만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독서교육을 통해 눈높이 교육이 가능하다.

넷째, 독서를 통한 영어교육은 단어 중심에서 영어 문장 중심의 접근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어독서교육을 통해 즐거운 학습이 가능할 수 있으며, 영어책을 읽으면서 습득한 다양한 배경지식은 학생들의 사고의 폭과 깊이를 계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경남 최초, 사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2011년 4월 15일, 사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개관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천 시청에서 시비 20여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다. 사천 시청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904.52㎡의 2층 건물이다. 주 6일(월요일 휴관) 개관하며 매일 10:00~19:00(주말



은 17: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시설 사용 및 도서 열람은 무료이나 대출을 위해서는 회원(연회비 납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10,000여권의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월 30,000원 정도의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지역보다 영어교육 수준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질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라는 사천교육의 특색과제를 지정하여 ‘도서관 친구되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영어읽기 수준 관리’, ‘영어독서 지도사 과정 운영’, ‘영어독서교육 관련 연수 개최’, ‘영어 관련 Special Day Event’ 실시 등을 통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Q(Literacy Quotient)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을 읽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인 능력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국제화 시대에 주역으로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LQ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어교육도 독서교육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 TaLK 프로그램과의 소중한 인연



박 선 희  
거창 웅양초등학교 교사

### 1. 그 소중한 만남의 시작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과의 첫 만남은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웅양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읍까지 가는 버스는 40분 간격으로 있으며 집에서 한참 걸어나와 버스를 타야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 이러한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TaLK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영어교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TaLK장학생을 배치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TaLK 장학생과의 만남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신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 2. 영어발음부터 확실하게

영어방과후교육을 전담할 TaLK장학생이 본교에 배정되었다는 안내장을 발송하자 학부모들은 1~2학년도 영어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어교육에 애타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어방과후 교육을 시작하였다.

처음 영어수업을 시작할 때는 보다 정확한 영어발음을 익혀주는 데 주력하였다. 소인수 학급의 장점을 살려 학생 개개인의 발음 교정을 시도하였으며 최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도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된 영어 발음지도로 인해 영어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TaLK장학생은 학습 진척 상황을 관찰하여 학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어 학습지도에 활용하였다.

### 3. 다양한 영어학습 체험

#### 하나, 영어 연극 만들기

해마다 12월이면 학교마다 학부모들을 초청해 한 해 동안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다양한 솜씨를 펼쳐 보이는 학예발표회를 실시한다. 2008년 12월 본교의 학예발표회는 지난 어느 때보다 놀라움과 환호의 박수갈채가 크고 길었다. 4~6학년이 세련된 영어 발음으로 유창하게 영어 연극 '우동 한 그릇'을 공연하였고 2~3학년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송 메들리를 영어로 멋지게 불렀기 때문이다. 그 후 2009년에는 '궁궐에서 만난 친구들' 2010년에는 '백설공주' 영어연극을 만들어 학교 학예회는 물론 경남초등영어연구회, 경남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극단 입체에서 주최한 겨울연극제에 참가하여 은상 2회 및 특별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 둘, 영어 뮤지컬 만들기

첫 해 영어연극을 공연한 후 더 많은 학생들이 영어 연극을 하고 싶어 했다. 영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왜 영어연극 안 시켜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살짝 장르가 다른 영어 뮤지컬을 만들기로 했다. 춤과 노래가 가미된 영어 뮤지컬은 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완성시켜 공연하였다. 첫 작품은 '아기 돼지 삼형제'였고 두 번째 작품은 '헨델과 그레텔'이었다. 작품에 맞추어 의상을 잘 갖춰 입고 공연하던 그 모습들이 학교 영어앨범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다.



#### 셋, KNN 유랑단 Show 노래자랑대회 참가

웅양포도는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기로 아주 유명하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포도를 먹다가 "음~ 이 포도 참 맛있다" 라고 말하면 심중팔구 "이거 웅양포도야" 라고 답할 정도다. 그래서 웅양 지역민들은 웅양포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해마다 9월이 되면 웅양포도 축제를 연다. 2009년 가을 우리학교도 2~6학년 전원이 이 포도축제의 한 행사인 KNN 유랑단 Show 노래자랑대회에 참가하여 'I have a dream'팝송을 불렀다. 연습 기간이 짧았던 탓에 TaLK장학생은 이 노래지도를 위해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왔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2위를 해 상금 및 다양한 상품권을 탔고 TV에 방송되던 날 함께 모여 축스러워 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을 시청하였다. TaLK장학생에게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고 전했다.

### 넷, 필리핀 어학연수 GO GO

1~6학년 전 학생에게 영어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면서 TaLK장학생에게 배정된 주당 15시간 중 2시간을 할애해 영어경시반을 운영하였다. 영어경시반 운영 목적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영어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다. 이 경시대회에 합격되면 필리핀 4주 코스 어학연수를 전액 무료로 보내준다. 읍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조차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수준에 맞는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근사한 생각을 했다. 그런데 2009년 한 명의 여학생이 이 어려운 경시대회에 합격하여 필리핀에 가게 되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모 집에 살고 있는 이 학생은 일찍 철이 들어 항상 고모에게 효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면 고모에게 더 많은 효도를 할 것이란 확신이 든다.

### 다섯, TaLK장학생을 활용한 영어방과후교육 수기 공모 참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해마다 TaLK장학생을 활용한 영어방과후수업 주제의 수기 공모를 한다.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학부모들은 해마다 이 수기 공모에 응모하여 2009년에는 학부모 부문 은상(2위), 2010년에는 금상(1위)을 수상하였고 학생 부문 역시 은상, 동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진솔한 글을 써서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학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크다. 또한 TaLK장학생과 열심히 영어공부하며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나타내어 멋진 상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여겨진다.

## 4. TaLK 장학생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TaLK Program이 3년째 진행되어가고 있다. TaLK장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영어학습이 교실에서 또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며 농촌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학부모님들 역시 학교방문 및 글을 통해 학교 교육에 감사하고 있다.

## 영어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말하기·쓰기 능력향상



한 지 현  
거제 중앙중학교 교사

2011년, 거제중앙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요청 경상남도교육청지정 영어평가방법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이번 연구학교 지정을 계기로 본교에서는 ‘영어 평가 방법개선을 통한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평가방법 및 영어 수업 방법의 변화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된 것으로는 10년 이상 영어공부를 해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읽기·듣기 위주의 학교 수업방식과 학교 외에서는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은 EFL상황(제 2언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상황) 등이 지적되어 왔다.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 영어 교육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학교 영어 평가가 읽기·듣기 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영어 교육 풍토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본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 향상을 중점 목표로 삼고 2011년 3월 1일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 운영 과정과 효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말하기·쓰기 IBT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 구축

말하기·쓰기 IBT(Internet-Based Test)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컴퓨터실의 기기를 정비했다. 첫째, 말하기 출제용 녹음장치와 평가관리 및 cache server용 laptop, 평가용 headset을 구입했다. 둘째, 영어 교사들은 국가영어

능력시험 관련 영어 말하기·쓰기 원격연수에 참가하고 IBT 시스템 사용방법 연수, 학생 대상 평가 프로그램 사용방법 연수를 실시하였다.

## 2. 말하기·쓰기 교수·학습 모형 적용 및 IBT 평가문항 개발

말하기·쓰기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교과서 핵심 구문을 이용하여 시험의 유형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3학년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진행하며 다양한 말하기 중심 수업 진행 및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2학년은 교과서 핵심 구문을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방식으로 쓰기 중심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IBT평가 시스템에 학생들을 적응시키기 위하여 3학년은 5월 30일~31일, 6월 1일, 2학년은 6월 2일~3일을 영어 수업 시간에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말하기 시험과 쓰기 시험 모두 교과서 핵심 구문을 위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림을 제시하여 실제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차 평가 시험에 3학년은 6월 7일에 말하기 평가를, 2학년은 6월 9일에 쓰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IBT 방식이 영어 능력 측정 도구로써 적합하고 평가 문항과 수업 내용이 일치하여 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특히, 말하기 평가에서는 컴퓨터 앞에서 헤드셋을 통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어 참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채점 결과는 각 영역별 3명의 교사들이 채점을 한 후, 교사들의 점수를 평균을 내어 신뢰도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 또한, 여러 가지 친숙한 그림과 상황을 보고 답을 해 나가는 과정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퀴즈를 풀 듯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 3. 말하기·쓰기 IBT 시스템의 일반화 모형 제시

IBT 활용 말하기·쓰기 평가의 문항 출제, 채점 기준표 작성, 문항등록, 시험실시, 시험 채점, 점수통계 등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여 일반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IBT 활용 말하기·쓰기 평가 방법 및 평가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일선학교에서 영어교사들이 IBT 활용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와 맥을 같이 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본론에서와 같이 평가 방법이 개선된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

첫째, productive skills인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며 평가를 하므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 수준에 맞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과 척도를 개발하여 일반화 할 수 있다.

넷째, 앞으로 실시될 국가영어능력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물적·인적 여건을 사전에 조성하여 학습자들이 IBT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끝으로, 위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전 교사들이 productive skills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영어 전용 어학실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영어 교사들의 출제와 채점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기·쓰기 채점자와 출제자 연수 기회 확대가 필수 선행 조건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연수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WEB 2.0 tools를 이용한 영어수업



박승훈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 수업시간에 컴퓨터 활용하시나요?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교실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나요? 가장 간단하게는 교재CD를 실행시키거나, 단어나 표현들을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정도가 되겠네요.

### 스마트폰은 쓰시나요?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적절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훌륭한 수업 기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바대로,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만드는 건,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디어 이니까요. 그 열정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는 데 파워포인트, CD, 인터넷, 스마트폰은 그저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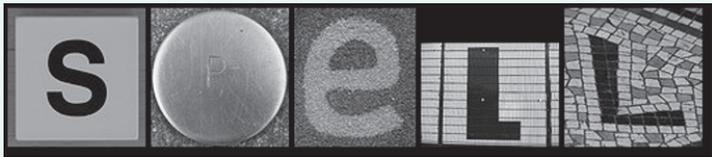
저는 이 글에서 제가 그동안 활용했고, 계속적으로 상용하는 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쓴 Web 2.0 tools에서 Web 2.0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 term Web 2.0 is associated with web applications that facilitate participatory information sharing, interoperability, user-centered design, and collaboration on the World Wide Web. A Web 2.0 site allows users to interact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in a social media dialogue as creators (prosumers) of user-generated content in a virtual community, in contrast to websites where users (consumers) are limited to the passive viewing of content that was created for them.

〈출처 : wikipedia.org〉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Web 2.0 tools라고 하면, 웹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나 협업이 가능하면 더 훌륭한 학습의 도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다양한 SNS사이트로의 공유가 쉽도록 되어 있어, twitter나 facebook에도 쉽게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Google 검색엔진에서 Web 2.0 tools를 검색어로 넣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툴들이 모두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저는 손쉽게 가공하여 사용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웹툴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가장 간단한, Spell with Flickr부터 Sign generator, Wordle, Audiboo까지의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Spell with Flickr

사이트 주소	<a href="http://metaatem.net/words/">http://metaatem.net/words/</a>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들의 철자를 Flickr <sup>1)</sup> 에 있는 사진에서 추출해 와서 보여주는 것
사용예	
활용	● 수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학생들의 시선을 끄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

### 2. Sign Generator

사이트 주소	<a href="http://www.signgenerator.org/thumbs.htm">http://www.signgenerator.org/thumbs.htm</a>
기능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에 사용자가 원하는 글을 넣을 수 있음
사용예	
활용	●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방식으로서의 이미지 제시

1) <http://www.flickr.com/> : 세계최대 사진 공유 및 전시 사이트



## 좋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



이 끝 련  
하동 진정초등학교 교사

지난해 말, 달라진 수업평가 제도로 7년 간의 수업연구교사 끝에 수업평사가 되었고, 올해에는 그 동안에 습득한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에게도 나누란 뜻으로 여러 학교의 컨설팅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수업평가 이전이나 이후나 조심스럽고 실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지만 배워서 얻은 것을 나누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열해본다.

### ♣ Tip 1.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2주일만 투자하자

영어로 학습지도안을 짜고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이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2주일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먼저, 지도안 짜기이다. 영어로 된 지도안을 여러 개 모아서 펼쳐 두고(교사용 지도서도 필수)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할 용어나 활동들을 하나하나 골라 짜집기를 한다. 한 단원을 골라서 1, 2, 3, 4차시 견본 지도안을 짜는 것이다. 그 다음은 단원이나 주제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만 바꿔 넣으면 된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교사들을 보면 1주일이면 충분했다.

그 다음 영어CD를 틀어놓고 주요 문장이나 명령어, 교수 용어들을 반복하여 듣고 실습해 본다. 그것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면 초창기에 나왔던 교수용 영어 비디오 자료가 보다 더 효과적이다.



지금처럼 교수용 영어자료가 많지 않았던 나의 수업연구 교사 시절, 교과서에 따라온 비디오 자료들을 보면서 공책 한 권 가득 교수용어들을 적고 같은 의미의 문장들 중에서 제일 낯익은 것들만 골라낸 다음 수업의 시작부터 끝인사까지 녹음을 해서 집에서도 차에서도 듣고 또 들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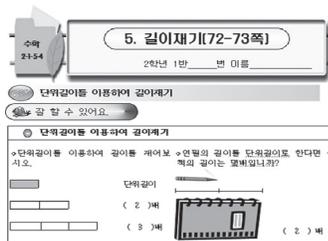
### ♣ Tip 2. 지도안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여라

수업공개를 오래 하다보면 지도안 작성에 탄력이 불기도 하고 동료교사들에게 폐를 끼친다

는 생각에 수업 계획, 지도안 작성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오자나 탈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수업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고 기껏 연구한 자료들을 혼자만 써먹을 수 있다. 긴 시간 연구한 지도안을 동료교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동료장학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경력이 적은 교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수업에 활용할 멋진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하기도 해 의외의 소득을 얻기도 한다.

### ♣ Tip 3. 학습지는 우리 반 만의 틀을 만들자

공개수업을 하다보면 거의 빠짐없이 학습지를 만든다. 어차피 만들 것이면 표본이 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연번까지 붙여서 보관한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학습지를 얻게 될 것이다.



### ♣ Tip 4. 참관자를 파악하라

교사인 이상 수업공개는 필수적이고 공개를 위한 수업이라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이라면 학생 전체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업을, 교사 중심 수업공개라면 수업의 절차와 요식을 갖추면서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수업이 공개 수업에 더 효과적인지 경험 많은 선배교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단 한 번의 수업으로 일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평가받는다면 말이다.

### ♣ Tip 5. 학습 자료는 수업 전 반드시 점검하라

창의성이 돋보이는 수업자료를 만들었는데 막상 수업에 사용해보면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 단계를 표시하는 작은 자료 하나라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수업연구교사,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좌절감도 느꼈고 수업을 준비하다 손가락을 5바늘이나 꺾매는 부상을 입기도 하면서 얻은 경험들, 누군가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그림책과 함께 하는 즐거운 수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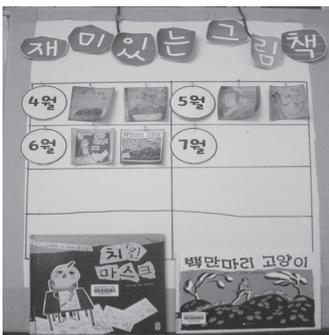


안 민 경

김해 월산초등학교 특수 교사

아이들은 단어를 인지하여 눈으로 책을 읽기보다 귀로 듣기를 더 좋아한다.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어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책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다.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 또한 귀로 듣는 이야기와 어우러져 더욱 흥미진진한 책읽기로 연결된다. 특히 단어 인지도나 읽기 이해력이 부족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일수록 읽기보다 듣기를 더욱 좋아할 것이며, 듣기의 중요성 또한 더욱 크다 하겠다.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림책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몸으로 느끼는 즐거운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교육매체가 된다.

### 1. 이 달의 재미있는 그림책



내가 근무하는 반은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6명이 알콩달콩 공부하는 학습도움실이라고 불리는 특수학급이다. 우리반 아이들에게도 매주, 매일 다양한 책을 읽어주면 좋겠지만,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주기 보다는 한 권의 책을 마음껏 탐색하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아이들의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교사가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면 그림책을 이해하고, 몸으로 체험하며 아이들의 표현력을 끄집어 낼 수 있는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반에는 교실 출입문 옆에 그림책 목록표가 있다. 매 달 2권의 그림책이 선정하며 매주 목요일 2시간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교과 형태의 수업을 진행한다.

그림책 목록표 아래에는 이 달의 그림책을 올려 두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자유롭게 책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전시해둔다.

## 2. 선생님의 목소리로 그림책 읽어주기

매주 목요일 2시간 그림책 수업이 진행된다.

첫째 주 목요일 그림책 시간에는 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에 큰 관심이 없다가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하루, 이틀이 지난 뒤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보며 그림책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주 목요일 역시 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지난 주의 그림책과 동일)로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은 지난 주와는 다르게 큰 눈으로 그림을 훑고, 귀를 쫓긋 세워 이야기를 듣고, 그림책의 재미있는 표현이나 반복되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따라 말하기도 한다.

점심 시간, 쉬는 시간 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집중을 위해, 틴틴이 교사의 목소리로 이 달의 그림책을 펼쳐 들려준다. 책의 제목, 주인공의 이름,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 등에 대해 조리 있지는 않지만 나름의 생각을 서툴게 말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모두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 3. 그림책으로 즐거운 공부하기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에게 40분의 수업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흥미와는 상관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

그림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이들은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활기찬 미술 활동 및 체육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흉내 내는 말, 이야기 차례, 상상하기와 같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수 개념 형성을 위한 수학교과, 기타 다른 교과영역에까지 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양하다.



- 그림책 : 백만 마리 고양이
- 00마리 그림책 만들기
  - 00마리 고양이 꾸며 붙이기
  - 가장 예쁜 고양이 찾기
  - 고양이 숫자 세기



- 그림책 : 야채로 도장 찍기
- 야채의 종류 알기
  - 야채의 단면 관찰하기
  - 야채로 도장 찍기



- 그림책 : 치킨 마스크
- 가면 만들어, 가면의 성격대로 행동하기
  - 우리 반 친구 가면 만들기
  - 우리 반 친구의 장점 찾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글을 모르고,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반 아이(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는 ‘책’이라는 매체는 매우 낯설고 어려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

우연히 재미있는 그림책을 접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매체이자 교육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교사의 목소리로 들려주기’를 반복했다. 자기의 이름도 읽지 못하던 아이가 교사의 책읽기가 멈추는 어느 부분에서 반복되는 낱말을 기억하여 읽기를 한다. 그림을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스스로 확인해 나가면서 간단한 내용에 답을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책을 말해볼까?’ 라는 질문에 책장에서 읽었던 그림책을 꺼내어 자랑하듯 보여준다.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와 그림이 보여준 이야기를 생각하며 미술공부, 체육공부, 수학공부를 집중하여 즐겁게 공부한다. 우리 반 아이들이 그림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새삼 아주 중요한 하나를 깨닫는다. 교사의 판단으로 우리반 아이들의 경험과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은 우리반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그림책을 넘기며 어떤 즐거움을 함께 나눌지 고민해 본다.



# 미술수업 속에서 다양한 영어 자료 찾아 활용하기



이진영  
창원 용마초등학교 교사

## 1. 미술과 영어의 만남

효과적인 교실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자료를 단위시간마다 만든다는 것은 현 초등학교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어려움이 큰 작업이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익숙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미술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포트폴리오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영어교과와 연계하여 영어수업에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미술교과의 자료를 영어시간에 활용해 보았다.

## 2. 미술에서 영어자료 찾아보기(3,4학년 미술-영어교과서 활용)

미술단원	영어 관련 주제	활용자료
1. 형과 색	• 색깔, 형태	• 색상환, 색분류판, 다양한 모양으로 구성된 작품
2. 경험표현	• 움직임	• 달리기, 노래 부르기, 자전거타기 등의 그림 자료, 움직이는 인형
3. 작품감상	• 다양한 활동	• 다양한 활동을 담고 있는 명화작품
5. 관찰표현	• 신체의 명칭, 표정	• 관찰그림, 인물화, 인물조각품
6. 상상표현	• 스토리 타임	• 다양한 이야기, 배경자료
7.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	• 인물의 표정 및 신체 특징 묘사	• 캐릭터 사진, 캐릭터 작품
10. 디자인과 생활	• 모양, 패턴, 색깔	• 패턴사진, 모양자료
11. 영상표현	• 가족소개, 인물소개	• 가족 친구에 관한 소개자료, 마인드 맵 자료

### 3. 미술자료 영어수업에 활용하기

단원	4. What color is it? 1. 형과 색으로 놀아보아요(3~4학년)					
주제	색에 관한 다양한 표현					
수업에 활용된 자료 활용 방법	<p>▶ 색에 관한 스토리텔링 자료 및 소품(셀로판 색깔관), 우리 반 최고의 색을 뽑는 순위관, 색상환, 색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분류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원색을 기본으로 구성된 이야기 자료를 통해 기본색 알기</li> <li>• 10색상환을 활용하여 10가지 색에 대한 영어표현 알기</li> <li>• 색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해 봄으로써 따뜻한 색, 차가운 색, 파스텔색, 원색 등의 표현에 대해 의사소통하기</li> <li>• 색의 특징에 맞게 친구에게 옷 입히기 활동을 통해 색에 대한 표현으로 의사소통하기</li> </ul>					
자료 및 자료 활용 모습	<p>&lt;스토리텔링 자료&gt;</p> <p>Once upon a time there were three colors, Red, yellow and blue. The red thought she is the most beautiful color. The blue thought she is the most beautiful color, too. How about the yellow? She thought so, too.</p> <p>One day the red and blue and yellow fought. The red said I am the most beautiful color. No, said the blue, I am the most beautiful color. No, said the yellow, I am the most beautiful color. And then, they pushed each other. And suddenly they found a new color. That is very beautiful color. What color is it? That is purple. What color is it? Right, this is orange. What color is it? This is green. Good! So red, blue and yellow thought they can make beautiful colors together. And then, they became good friends.</p>					
						
	스토리텔링 자료	색 알아보기	색상환	색상환을 이용해 영어 표현익히기	색 분류관	좋아하는 색으로 친구 옷 입히기

### 4. 미술자료 영어수업 활용후기

교사는 미술시간에 활용한 다양한 자료를 영어시간에도 활용하여 자료제작의 시간과 노고를 즐기며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영어과와 미술과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학생들도 미술시간에 스스로 만든 자신의 작품들을 영어시간에 재활용함으로써 영어수업에 대해 더욱 친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 브레인라이팅 (Brain writing)을 통한 창의성 향상



김 미 연  
창원 인남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수업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동기유발이 확실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으며, 교과서+a가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특정 교과에 적합한 최선의 수업 형태나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정답은 없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교사의 본분은 다른 무엇보다 수업을 잘하는 것이고 수업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좋은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수업이 항상 재미있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매 시간 마다 재미있고 특색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서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지향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은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기를 여러 차례, 오늘날에는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표로 국가 경쟁력을 위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의 인재 육성을 핵심 역량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창의적 기법 활용 수업의 하나로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을 활용한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브레인라이팅의 목적

브레인라이팅 (Brain writing; BW)은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별명처럼 참가자들이 발상 결과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기록한 다음 발표하게 하는 창의적 사고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sup>1)</sup> 기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독창적인 사

1)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가 새롭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창의적 사고기법이다.

고에 방해받을 수 있지만,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하면 모두 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있게 진술할 수 있다.

브레인라이팅은 모든 교과에 적용가능하며 학습자들의 아이디어가 고착되어 있을 때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학습자들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키워주는 데 효과적인 기법이다.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수줍어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 없고,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들,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발표하는데 소극적인 학습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남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습자들, 자신의 내면에 더 관심이 많고 글로 사고하기를 즐겨하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 3. 브레인라이팅의 특징

BW는 발표하기를 꺼리는 소심한 성격의 학습자들도 소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이디어 산출 속도가 빠른 학습자들과 느린 학습자들 모두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사고를 진행함으로써 개별화 수업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아이디어 산출 속도가 빠른 학습자들은 책상 가운데 비치된 여분의 종이를 활용하여 사고의 속도에 맞는 진보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몰입을 자극하여 사고의 유창성 향상을 가져 올 수 있고 친구의 의견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정교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고하고, 발언자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는다.

둘째, 침묵을 통해 개인 발상을 하므로 '발언을 통해 사고가 방해되는 단점'이 없다.

셋째, 용지에 본인이 직접 기입하기 때문에 사회자가 발언을 대신 기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사고의 단절, 적절한 용어의 채택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집단 인원이 몇 명이라도 가능하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문제발견 회의와 아이디어 회의를 실행할 수 있다.

### 4. 수업 활용 방법

가. 4~5명 정도의 팀원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한다. 그 후 각자 브레인라이팅 종이를 1장씩 갖는다. 예비 종이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책상 가운데에 놓는다.

나. 브레인스토밍 4대 원칙을 그대로 준수한다(비판없음, 질보다 양,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다. 시작을 알리면 가로 칸 A1, A2, A3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입한다.

문제 진술 :		
A1	A2	A3
B1	B2	B3

- 라. 3가지 아이디어를 기입하고 나면, 그 종이를 책상의 가운데 종이와 바꾼다.
- 마. 이미 기입되어 있는 세 가지 아이디어(A1, A2, A3) 아래 칸(B1, B2, B3)에 새로운 아이디어 세 가지를 써 넣는다.
- 바. 아이디어 발상을 멈추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종이를 바꾸면서 아이디어를 써 넣는다.
- 사. 아이디어 발상이 끝나면 토의를 통하여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고른다.
- 아. 마지막으로 생각나누기를 통하여 정리한다.
- 활동별로 브레인라이팅지에 작성한 내용을 모듈별로 정리하여 발표시킨다.
  - 가장 발표를 잘한 모듈을 선정하여 칭찬해 준다.
  -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준다.

## 5. 나가며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가장 훌륭한 수업은 교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수업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어렵듯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사로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언제나 고민하며, 훌륭한 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이고 좋은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는 수업이 되고, 감동을 주는 수업이라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 본다.



## 학습목표 진술



이 동 립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학습목표는 학습자가 학습을 끝낸 후 그 도달도를 증거로써 보여 주어야 할 행동이며, 수업자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도달하도록 해야 할 명확한 지향점이다. 즉 한 시간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학생이 성취해야 할 행동 양식을 서술한 것이 학습목표이다.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업방법, 전략, 학습자료 및 수업매체 등의 제반 수업환경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학습 밀도를 높이고 학습 성과의 평가를 위한 준거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2007 개정 통합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주제나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동목표 또는 표현목표로 진술하기도 한다. 행동목표는 결과 중심의 진술로 구체성과 명시성을 가지나 교수·학습과정을 지나치게 통제한다. 반면 표현 목표는 과정 중심의 교육상황이나 과정자체를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는 교수·학습이나 평가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교수·학습 과정 자체에 관심 갖도록 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수업자는 학습 주제와 학생 개인의 교육적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학습목표의 구성요소

학습목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지만 Mager는 명확하게 진술된 목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가. 성취 행동 : 학습자들이 학습 후에 나타내 보이는 학습 결과로써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용어(behavioral term)로 진술되어야 한다.

나. 조건 : 학습자가 어떤 상황 또는 조건(conditions)하에서 그 성취행동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 도달 기준 :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것은 성취 행동의 특성이나 시간의 제한, 올바른 반응의 수 등을 목표 속에 진술하는 것이다.

## 2. 학습목표의 진술 방법

가. 학습목표는 교사의 행동이 아닌 학생의 행동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나. 학습목표 진술은 그 학습 단위 시간 중이나 그 단원의 학습 도중에 나타나는 학생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학습 단위 시간이나 학습 단원이 끝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변화된 행동과 관련지어 진술해야 한다.

다. 학습목표 진술에는 학습되어야 할 준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진술한 문장의 길이는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5자 내외가 알맞다.

마. 모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진술한다.

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시적 행위 동사들을 활용해 진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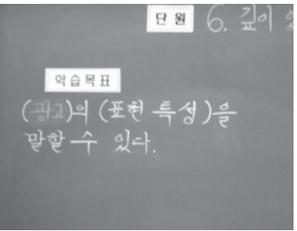
예시) 쓴다, 지적한다, 열거한다, 비교한다, 그림을 그린다, 적용한다, 기술한다, 찾아낸다, 말한다, 구별한다, 설명한다, 변화시킨다, 계산한다, 해결한다, 할 수 있다 등  
사. 구체적인 학습내용과 기대되는 학습자의 행동이 포괄되어 하나의 진술문 속에 제시되어야 한다.

예시) 시계를 보고 분 단위까지의 시각을(내용)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행동).

아. 수업 과정에서 의도되고 있는 성취 행동(A)과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될 조건(B), 그리고 학습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달 기준(C)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진술한다.

예시) 100m를(조건) 16초 이내에(도달기준) 달릴 수 있다(성취 행동).

## 3. 학습목표 제시 사례

<p>판서</p>	<p>교사가 미리 판서(종이 등으로 가렸다가)로 제시한 후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 목표의 중요 부분에 색분필을 사용하며 이때 한 장면에서 3 가지 색이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시된 목표의 요소를 설명해 주거나 중요 낱말을 카드로 만들어 제시한 후 전개 과정에서 떼어서 판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p> <p>학습 마무리 과정에서 떼었던 카드를 다시 목표에 붙이고 형성평가하는 카드로도 활용한다. 중요한 낱말을 미리 비워두고 괄호 속의 내용을 유추하게 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학습 목표 달성을 통해 얻어질 이익을 알려주며 학습 목표 달성의 자신감을 주면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p>	
-----------	---	--

언어 상호 작용	<p>전시 학습을 상기시켜 유도하거나 주변 경험에 의한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습과제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유도하거나 제시된 관련 자료의 관찰을 통해서 유도하기도 한다.</p>	
삽화, 그림, 실물	<p>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제를 내어서 유도하기도 하고 관련 실물자료를 제시하여 유도할 수도 있다. 또 교재의 삽화나 그림을 보고 학습 목표를 찾게 할 수도 있다.</p>	
시청각 자료	<p>영상화면의 처음과 끝만 보여주면서 유도하거나 음성이 없는 화면만 보여주기, 잘못된 경우를 보여주기, 시범 영상을 보여주며 유도할 수 있다.</p>	

#### ▣ 참고자료

1. KICE교수학습개발센터 (<http://classroom.re.kr>).
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2011), 교육과학기술부.
3. 교육실습의 길잡이(2010),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4. 변영계 · 이상수(2003), 수업설계, 학지사.

# 차 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학생 / 학부모 서비스 |

NEIS

차세대 나이스의 학생/학부모 서비스는 학부모들이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내 자녀 바로 알기’를 이어 받아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자기정보 열람권 보장(국가인권위원회 권고('08.12. '개인정보 열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를 위해 학생서비스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학생/학부모 서비스의 개선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 이번호와 다음호의 2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 1. 추진 방향

###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접속방식 다양화

- 정보 수준에 따라 접속방식을 달리하여 학교정보 등 단순정보는 ID/ Password 입력으로 열람 서비스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I-PIN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

### ▶ 열람서비스 신청 및 승인 업무 부담 경감

- 전학, 상급학교 진학시 학생(학부모)가 재신청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교사는 기 승인정보를 활용하여 일괄 승인

- 학생서비스는 학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학교의 별도 처리 없이 나이스 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승인처리를 수행

## 2. 서비스 항목 확대

학부모서비스(57종)	학생서비스(5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정보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본정보</li> <li>• 교육과정-과목및담당교사, 반별시간표, 주간학습(초)</li> <li>• 학사일정-연간학사일정, 월간학사일정</li> <li>• 급식식단표-월간식단, 주간식단</li> <li>• 가정통신문</li> </ul> </li> <li>■ 학생정보 (2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li> <li>• 학습안내-교외학습자료, 교내학습자료</li> <li>• 학생생활-월출결통계, 출결사항, 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활동조회, 치료교육활동조회(특)</li> <li>• 성적-고사별정·오답표(중,고), 성적통지표(중,고,특), 표준점수분석표(중,고,특), 성적변화표(중,고,특), 학업성취도(초,중,고), 개인별맞춤학습(중,고), 성적(초,특)</li> <li>• 진로/상담자료, 심리검사결과</li> <li>• 대입전형자료제공현황*</li> <li>• 각종 교육비 납입현황*</li> </ul> </li> <li>■ 학부모상담관리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공지사항</li> <li>• 상담신청및조회-선생님과의상담, 상담내역조회</li> </ul> </li> <li>■ 자녀교육활용정보 (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특수아지도</li> <li>• 내자녀 건강알리미</li> </ul> </li> <li>■ PAPS (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마당-자가 측정</li> <li>• 평가마당-평가결과조회, 평가결과이력조회, PAPS지수조회, 통계분석</li> <li>• 처방마당</li> <li>• 활용마당-학습도움자료조회, 운동/건강/PAPS/주요콘텐츠, 용어사전</li> <li>• 관리마당-자녀의현재상태, 자녀의신체활동분석</li> </ul> </li> <li>■ 방과후학교(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강좌신청현황*</li> <li>• 방과후학교출결상황조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정보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본정보</li> <li>• 교육과정-과목및담당교사, 반별시간표, 주간학습(초)</li> <li>• 학사일정-연간학사일정, 월간학사일정</li> <li>• 급식식단표-월간식단, 주간식단</li> <li>• 가정통신문</li> </ul> </li> <li>■ 학생정보 (2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li> <li>• 학습안내-교외학습자료, 교내학습자료</li> <li>• 학생생활-월출결통계, 출결사항, 자치/적응/행사/계발/봉사활동조회, 치료교육활동조회(특)</li> <li>• 성적-고사별정·오답표(중,고), 성적통지표(중,고,특), 표준점수분석표(중,고,특), 성적변화표(중,고,특), 학업성취도(초,중,고), 개인별맞춤학습(중,고), 성적(초,특)</li> <li>• 대입전형자료제공현황</li> </ul> </li> <li>■ 학습활용정보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정보, 인성정보, 진학정보, 진로정보, 특수아정보</li> </ul> </li> <li>■ PAPS (1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Y PAPS</li> <li>• 측정마당-자기신체평가, 자가 측정</li> <li>• 평가마당-평가결과조회, 평가결과이력조회, PAPS지수조회, 통계분석</li> <li>• 처방마당</li> <li>• 활용마당-학습도움자료조회, 운동/건강/PAPS/주요콘텐츠, 용어사전</li> <li>• 관리마당-신체활동일지, 신체활동분석</li> </ul> </li> <li>■ 방과후학교(3종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강좌조회</li> <li>•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신청</li> <li>• 방과후학교 출결상황조회</li> </ul> </li> <li>■ 창의적체험활동</li> </ul>

※ \*의 항목은 신규 제공 서비스임

※ 학생서비스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은 제외

### 3. 접근 방식 다양화

#### ▶ 로그인 및 인증 방식 다양화로 사용자 접근성 향상

이전	개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I-PIN
	ID/Password, 휴대폰인증

※ ‘휴대폰 인증’은 비밀번호 찾기 시 본인확인 경우에만 사용

####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서비스 정보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인증방식 제공

##### - 학부모서비스

서비스항목	항 목	공인인증서	I-PIN	ID/PWD	무인증
학생관련정보 (36종)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학부모-교사간 상담, 특별활동, 방과후학교 등	○			
학생관련정보 (9종)	과목 및 담당교사, 시간표, 급식정보 등	○	○	○	
교육활용정보 (12종)	교육활용정보안내(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 진로지도), 건강알리미, PAPS(활용마당)	○	○	○	○

##### - 학생 서비스

서비스항목	항 목	공인인증서	I-PIN	ID/PWD	무인증
학생관련정보 (34종)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특별활동, 방과후학교, MY PAPS 등	○	○		
학생관련정보 (9종)	과목 및 담당교사, 시간표, 급식정보 등	○	○	○	
학습활용정보 (11종)	학습활용정보안내(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 진로지도 PAPS(활용마당)	○	○	○	○

※ 공인인증서의 경우 인터넷뱅킹용 등 모든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경남교육정책 인터넷 방송으로 거듭나다.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총무담당

오늘날 인터넷, 페이스북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의사소통, 상호 협력, 여론 수렴 등의 소통과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가상공간을 통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교육 또한 사이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간에 매우 익숙해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을 교육현장과 직접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교육현장에 접목하는 데 인터넷방송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방송은 이와 같은 여건과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시스템구축과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시험운영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월요회의와 2개월 단위로 홀수 달(1, 3, 5, 7, 9, 11월)에 개최되는 교육정책관리자회의 방송 내용은 주문형 비디오(VOD) 방식의 파일을 인터넷 방송에 탑재하여 각급 학교(기관)에서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회의 내용을 직접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인터넷방송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언론보도, 각종 회의 개최 시 안내, 교육정책관리자 회의 및 재난안전 학교장 교육(5.27) 등을 통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대만큼의 관심이 부족하여 그다지 접속 횟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편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시의 적절하게 일선 현장에서 직접 뿌리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이 시급한 실정으로 교직원들의 많은 시청이 요구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http://broadcasting.gne.go.kr/>이며 각급 학교(기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자택 등 외부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

## □ 인터넷 방송 안내

- ▷ 홈페이지 : <http://broadcasting.gne.go.kr/>
- ▷ 주요 방송 내용
  - 월요일회의 : 매주 월요일(08:30)
  - 교육정책관리자회의 : 홀수 달(1, 3, 5, 7, 9, 11월)
- ▷ 방송방법 : 주문형 비디오(VOD) 방식
- ▷ 비디오 자료 탑재 시기
  - 월요일회의 : 회의 당일 오후
  - 교육정책관리자 회의 : 회의 개최 다음 날
- ▷ 회의자료 탑재 시간 : 회의 개최 전일
- ▷ 공지사항 : 회의 개최 여부 및 일시 등 공지
- ▷ 방송시청 : 학교(기관)에서만 시청 가능
- ▷ 인터넷 방송 메인 화면
- ▷ 문의사항 :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총무담당 황명진(055-268-1323)

#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으로 희망을 키워갑니다



김 동 배  
거창 주상초등학교 교사

## 1. 주상초등학교는 작지만 알찬 가족 같은 학교입니다

주상초등학교는 거창에 위치한 시골학교로 전교생 23명이 오순도순 생활하고 있는 작지만 알찬 학교다. 2009년 문동식 교장이 부임하면서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가 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학생을 내 자식처럼, 선생님을 부모님처럼’이란 슬로건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학교 교육의 특성화 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행복한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으로 선정·운영해 오고 있다.



## 2. 주상초등학교는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으로 명품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은 초등학교 교육 목표인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꼭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목표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곱가지를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목표 의식과 학교생활의 방향성을 안내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이란 책 읽는 세상(Read), 지금은 자격증 시대(Obtain), 영어에 빠져보자(Yawp), 나도 100점(Grade), 체력은 희망(Brawn), 오성과 한음(Date), 주머니 속 작은 악기 마음 속 큰 기쁨(Play)이란 프로그램을 말한다.

책 읽는 세상(Read)은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읽기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정착시켜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교의 도서관인 꿈자람터를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개방하여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사 독서 동아리 아마존(아이들의 마음을 책으로 읽는 좋은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 더 나은 독서지도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금은 자격증 시대(Obtain)는 워드 자격증과 한자 급수 취득을 통해 진로에 대한 준비와 도전 정신을 함양시켜 정보화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컴퓨터부, 특별활동으로 한자부를 운영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응시료를 학교에서 전액 지원하여 2010년에는 워드 자격증은 2명, 한자급수는 22명이 취득하였다.



영어에 빠져보자(Yawp)는 1일 1단어 1문장 외우기를 통해 교육과정 필수 단어 및 문장 암기를 통한 영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켜 글로벌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영어집중교실을 운영하여 외부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또,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단어 중 100문항을 출제하여 90문항 이상을 맞춘 학생에게는 영어 우수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도 100점(Grade)은 1교과 100점 맞기를 통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어 학업성취도 80% 이상을 달성하여 기초·기본이 튼튼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학력 향상 교재 지원, 방학 중 캠프 운영, 야간주상마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경상남도교육청 학력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체력은 희망(Brawn)은 한 번에 쉬지 않고 줄넘기 10분 이상 또는 운동장 10바퀴 돌기를 통해 체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매일 등교 후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체육시간에는 사전운동으로 줄넘기를 실시하여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학교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들관 달리기와 뒷산 달리기도 학기별 1회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바탕으로 2011. 경남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불링에 참가하여 4개 부문에서 1위 2종목, 2위 1종목에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오성과 함음 (Date)은 1년에 10명의 친구사귀기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성을 함양시켜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교의 학생들은 또래 친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학교 방문을 통한 친구 사귀기, 개교기념일이나 학교재량휴업일인 학교의 학생 초대하여 친구 사귀기, 각종 대회 출전이나 행사 참여를 통한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머니 속 작은 악기 마음 속 큰 기쁨(Play)은 한 달에 한 곡 악기 연주 및 노래 부르기를 통해 기악능력 향상 및 고운 심성을 길러 감성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과후교육활동 음악부를 운영하여 리코더, 오카리나 등을 익히고, 즐겁게 노래도 부르면서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달에 한번 학급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 부르는 기회를 가져 향상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 3.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 주상교육의 정착기를 맞이하여 문동식 교장 외 전교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더 알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실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2009년부터 운영해 온 희망기움학교를 통해 주상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 행복지수를 높여 명품학교로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다.

작지만 알찬 가족 같은 주상초등학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화이팅!



#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꿈키움 사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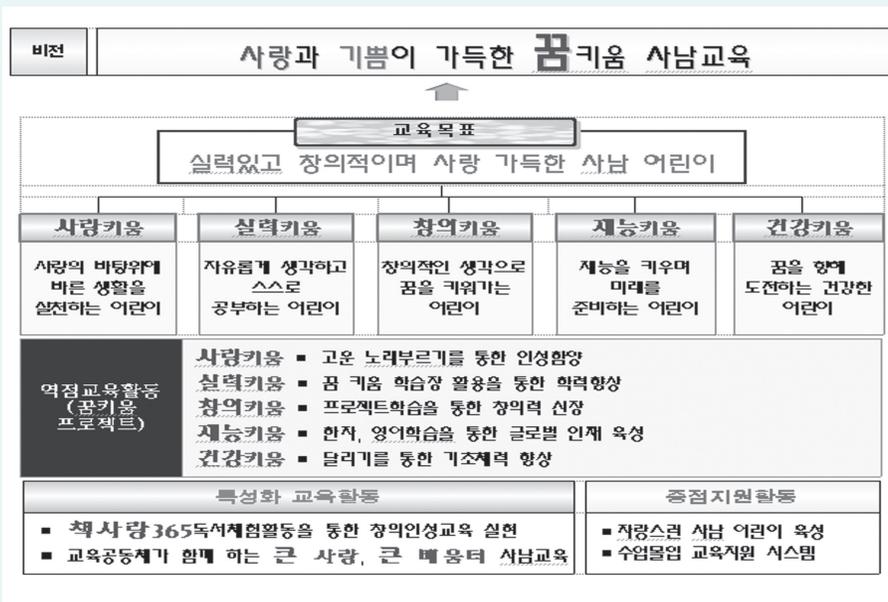
김민정  
사천 사남초등학교 교사

## 1. 명품교육, 명품학교를 꿈꾸며

지난해 9월, 지역민의 큰 환영 속에 사천시 사남벌에 32명의 교직원과 4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사남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사남초등학교는 1920년 개교하여 79회 3,5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1999년 폐교된 8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옛 지역의 명문학교였다. 새 사남초등학교는 옛 학교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한 번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명품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사남어린이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2. 명품교육을 위한 설계

사남초등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사랑과 기쁨으로 꿈을 키워가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꿈키움 사남교육’을 학교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교의 교육목표 구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실천하고 있다.



### 3. 학교 특성화 교육활동 및 꿈키움 프로젝트 운영

#### 가. 학교 특성화 교육활동

##### 책사랑365 ■ 책사랑 365독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 실현

-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연계활동  
(사천도서관/푸르지오작은도서관/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
- 책사랑 365 독서인증제 실시
- 도서관 활용수업 실시(전 학급 주 1회 이상)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책사랑 페스티벌 실시
- 교사 및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

#### 나. 꿈키움 프로젝트 운영

##### 사랑키움 ■ 고운 노래 부르기를 통한 인성함양

- 노래하는 등꽃길 운영(주 3회 동요, 주 3회 클래식)
- 사랑키움 학급방송  
(학급별 1회 고운노래부르기를 통한 인성함양 실천모습을 담은 학급방송실시)
- 고운 노래부르기대회/학급별 합창대회/교가 부르기/의식이 부르기 대회 실시
- 가족이 함께 노래하는 분위기 조성(가족 노래부르기 대회 실시)
- 사남 합창부/ 사남 합주부/ 사남 풍물부 운영



사남합창부

##### 실력키움 ■ 꿈 키움 학습장 활용을 통한 학력 향상

- 꿈키움학습장 개발 활용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장
  - 꾸준한 복습 습관 형성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
- 사천교육지원청 지원 복습노트 활용
- 공부하는 방법 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활용
- 학력향상을 위한 1학년 1프로젝트 추진



저학년용



고학년용

##### 창의키움 ■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창의력 신장

- 1~6학년년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 구성
- 학생, 교사, 학부모가 연계하여 하나의 아이디어 공유
- 탐구주제 선정 및 탐구과제 수행
-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및 산출물 전시회 개최
- 한국항공(KAI)과 연계한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과제 수행  
(5~6학년)



KAI와 연계학습

### 재능키움 ■ 한자, 영어 학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한자급수제 도전
  - 학년 및 개인별 수준에 맞는 도전 급수 선정
  - 한자 급수 도전(7월)
- 영어학습 강화
  -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영어골든벨대회/영어도서독후감 공모
  - 교내 영어회화 동아리 운영
  -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과 연계한 영어교육강화

### 건강키움 ■ 1110달리기를 통한 기초체력 강화

- 건강짱! 체력짱! 1110달리기
- 체육시간 5분 달리기
- 가족과 함께 하는 달리기 대회 (초전공원 활용)
- 사남육상드림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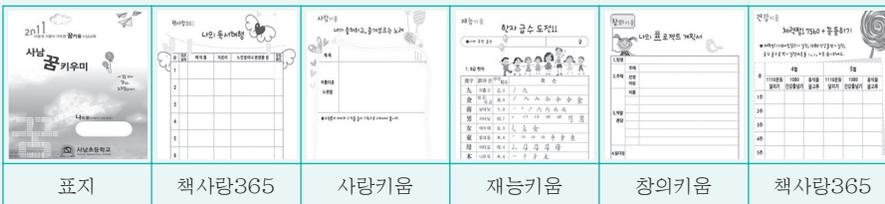


초전공원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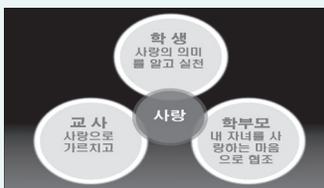
육상드림팀

### 다. 꿈키우미 및 꿈키움 학습장 개발 활용

학생들의 보다 알찬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꿈키우미」학습장을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하였다. 학교의 특성과 교육활동과 꿈키움프로젝트를 수행한 활동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다.



### 4. 큰 사랑, 큰 배움터로의 발전



오랜 역사의 숲속에서 하나 둘 걷어나온 푸른 소나무와 영산홍이 사남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남초등학교는 실천하는 학생, 잘 가르치는 교사, 참여하고 도움 주는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며 세개의 바퀴를 움직여 나갈 원동력을 길러내기 위한 큰 사랑, 큰 배움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 ‘별주부전’ 체험활동으로 애향심 가득한 학교 만들기



송진령  
사천 서포초등학교 교사



## I. 사천의 숨은 보석 ‘별주부전’ 전설 속의 아이들

서포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는 곳은 아름다운 풍경과 전설 속입니다. 학교의 남서쪽에 위치한 비토섬은 서포면 선전리와 연륙교로 이어져 바닷물이 물 돌이동처럼 섬을 돌아나가고, 점점이 떠 있는 섬, 김 양식장, 비토섬 갯벌은 고즈넉한 섬마을과 어우러져 사천 8경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그 아름다움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유명한 ‘별주부전’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별주부전의 전설에는 이곳 비토리에 피 많은 토끼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바다 용왕의 사자인 별주부가 토끼부부를 찾아왔고, 자라의 감언이설에 속은 토끼는 용궁에 따라갔다 간을 빼앗겨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기지를 발휘,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육지로 돌아오던 토끼는 월등도 부근에 이르러 바다에 비친 섬을 보고 뛰어내렸다 물에 빠져 토끼섬이 되었고 토끼를 놓친 자라는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곳에 섬이 되어 거북섬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용궁으로 떠나보낸 아내 토끼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목이 빠지게 남편 오기를 기다리다 목섬이 되었다는 전설로 서포면 일대는 온통 ‘별주부전’ 전설이 그득합니다.

서포면에 위치한 서포초등학교에서는 삶의 터전이자, 자람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특성을 잘 알고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별주부전’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II. ‘별주부전’ 체험활동

### 1. ‘별주부 전설 깃든 한마당 서포체육’에서 배운 고장 사랑

이번 체육행사는 ‘별주부 전설 깃든 한마당 서포체육’이라는 기치 아래 청·백군이 아닌 자라군, 토끼군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프로그램을 별주부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토의를 통하여 경기를 정하였습니다.

니다. 그 결과 ‘토끼의 간은 어디에?’, ‘토끼와 자라’ 등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또한 학부모님들과 우리 고장 일대의 지명과 유래에 관련된 다양한 퀴즈를 푸는 등 지역민과 함께 우리 고장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 2. ‘수궁가’ 노래에 깃든 별주부 전설

“아이고, 나 저 물 무서워 못 가겠다!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된대도 나 못 가겠다!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된대도 나 못 가겠다!” 이는 용궁에 사는 자라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온갖 감언이설로 꾀어 용궁으로 데리고 가나 토끼는 피를 내어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 돌아온다는 줄거리가 담긴 수궁가 한 대목입니다. 본교에서는 2011. 특성화교육활동으로 ‘수궁가 노래교실’을 개강하고 노래를 불러봄으로써 비토섬의 전설과 판소리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궁가 노래교실’은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전수자이신 이윤옥 선생님께서 월 2, 4주 금요일과 여름, 겨울 방학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을 초청한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3. 달리며 체력 쑥쑥! 나분이 동네 향기 솔솔!

서포초등학교는 매일 중간체조시간에 달리기를 하며 매달 마지막 주에 나분이 왕 선발 대회를 갖습니다. 1,2,3학년은 학교 운동장을 달리고, 4,5,6학년은 나분이 동네를 한바퀴 달립니다.

나분이 왕 선발 대회를 통해 아이들은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와 갯벌 그리고 별주부 전설을 가슴 속에 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4. 별주부 전설의 고장 연수는 선생님부터.....

서포초등학교 교직원들은 막연히 알고 있는 고장의 전설, 지명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교직원의 연수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교직원이 폐교학교인 금진초등학교, 비토초등학교, 자혜초등학교의 위치, 연혁 및 우리 고장의 지명 유래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별주부전’ 전설이 깃든 비토섬 주변의 섬(월등도, 토끼섬, 거북섬, 목섬 등)들을 답사하였으며 다매곶별 체험마을에서는 다가오는 6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다매체험활동을 위해 활동 내용 및 지도 방법 등을 다매 마을 책임자로부터 안내 받으며 학생 지도를 위한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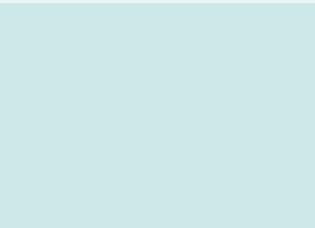
## 5. 별주부 전설로 채워진 교실 환경

우리학교 현관 및 복도에는 학생들이 꾸며놓은 비토섬 일대의 지명과 그 유래가 벽면 가득 채워져 있고, 각 교실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체험활동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실로 가는 길에, 급식소 가는 길에, 하교하는 길에, 도서관 가는 길에 언제 어디서든 마주하게 되는 별주부전의 전설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 Ⅲ. '별주부전' 전설 깃든 미래의 서포 아이를 기대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세계화 될수록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별주부전'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설, 아름다운 깃벌에 대한 자긍심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여, 유능하고 주체성 있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포 아이들은 세계화를 무대로 무한한 경쟁 속에서 자긍심과 주체성에 바탕을 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가 되어 갈 것입니다.



# 바다를 건너 세계로 향한 꿈을 키운다



노 오 기

통영 사랑중학교 교사

## 1. 우리학교는

본교는 한려수도의 중심인 통영 앞바다에서도 산세가 수려하기로 이름 난 사랑도에 위치하고 있는 40년 역사의 작은 중학교이다. 전교생 31명, 교직원 13명의 구성원들은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협조에 힘입어 바다를 건너 세계로 향한 꿈을 키우는 일에 밤낮이 따로 없다. 본교 학생들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의 바르고 고운 심성을 지녀 학교 폭력 등의 단어는 잊은 지 오래되었고, 새벽같이 바다에 일을 나가시는 부모님과 일상의 리듬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등교하여 학업에 임하며, 오후에는 관사에서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전교생이 야간 공부방에 참여하여 면학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더욱이 본교는 사교육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교육의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학교에서 해결된다. 교원들 또한 그 능력과 교육적 열의가 검증된 우수한 교사들로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이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밤낮으로 교원 상호간에는 물론 학생들과 지역민들을 대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의 강한 결속력과 친목 도모로 교육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 2.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세계로 향한 꿈 키우기’ 활동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국제화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학생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UNESCO)의 후원을 받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을 운영하며 또한 통영지속가능발전도시(RCE)의 행사인 BTW해외체험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 가.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및 ‘찾아가는 문화수업’(CARAVAN) 유치

학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한국유네스코와 경상남도교육청의 후원아래 ‘찾아가는 문화수업’(CARAVAN)활동을 실시하

01



02



01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수업’(CCAP)에서 학생들이 외국인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02 ‘찾아가는 문화 교실’(CARAVAN)에서 학생들이 중국전통복장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였다. 캐러번 활동은 3개국의 외국인(러시아, 중국, 부탄)이 1박2일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문화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나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 나. 해외체험활동(Brigde To the World) 참가

통영지속가능발전도시(RCE)가 매년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개개인의 꿈 키우기 탐방활동의 일환으로써 겨울방학 중에 실시되는 해외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본교 학생들도 선발되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 개개인의 소질에 대한 탐색활동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 해외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 2. 다양한 영어학습활동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화시대에 알맞은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영어 학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 오로지 학교교육에만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기에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들에 큰 영향을 끼치며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 가. 전교생 영어일기 쓰기

영어의 4가지 기능 중에 힘들다고 여겨지는 writing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교생이 주 2회 이상 영어일기쓰기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영어교사가 매일매일 첨삭지도가 가능하기에 학생들의 실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쓰기능력 배양은 앞으로 실시될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영어신문동아리 운영

영어신문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영자신문동아리를 조직하여 매일 저녁 한시간씩 모임을 가져 국내청소년 영자신문 감독과 기초영작문 학습을 하고 있다. 학교의 행사 때마다 영어기사를 작성하여 연중 2회 영자신문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다.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영어문장 암송능력과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여름방학 후에 1학기에 학습한 교과서를 암송하는 교내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학 중 과제로 본인이 암송하고자 하는 단원을 선정하여 발음, 억양,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암송을 연습하여 발표한다.

#### 라. 어휘인증제 실시

2학기 말에 한 해 동안 공부한 단어들을 학년별로 총정리하여 일정 점수(85%)를 받은 학생들에게 어휘인증을 부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어휘학습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강한 학습동기를 심어주고 있다.

#### 마. 맞춤형 멘토영어캠프 실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과 멘토-멘티를 맺어 단기간에 영어 학습에 대한 집중상담과 실제 활동을 하게 하는 맞춤형 멘토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전공한 대학생들이라 좀 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눈높이 활동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영어신문, 영어일기, 영어콩트 등 단기간에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활동하며 발표하는 시간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흥미와 관심을 드높이고 있다.

### 3. 기대 효과

글로벌 시대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한다. 본교는 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섬지역의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이해 교육과 영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바다를 넘어 세계로 향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0년 직장·기술보장학교, 항공기 제작 Meister 육성교육



김길진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사

## I. 준비된 교육 여건

전국에서 유일한 항공·조선마이스터고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사천시는 항공 산업체 70%가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미래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의 중추 도시이다. 우리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후 지자체인 사천시에서 연 2억 여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인 비행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대신항공(주) 등 15개 여 개의 항공 산업체와 산학협약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인 교육과정 설계 및 확정, 8명의 산업체 기술명장의 주 2일 이상의 기술교육 지원과 산업체를 교육장(教育場)으로 기술교육재료를 지원받고 있다. 또, 장학금과 특강 등 다양한 혜택도 받고 있다.

항공·조선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현대식으로 교육관을 개축하였고, 협동심과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150명 수용의 제1기숙사와 2012년 2월 완성을 목표로 하는 150명 수용의 제2기숙사 신축을 앞두고 신명나는 마이스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항공·조선마이스터 기술교육의 요람인 각 기술혁신소의 리모델링과 기술교육장비의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여 공부하고 싶어 온, 열정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 와 밤낮으로 자신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의 발전을 알고 스스로 찾아 온 열정적인 교직원들로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 II. 평생직장·기술보장교육

학교의 비전을 ‘100년 직장·기술보장학교’로 설정하고,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기술명장!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능력 있고 창의적인 항공조선기계 기술명장 육성’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신명나게 하고 있다.

### 1. 전문지식·기술과 직업정신 교육

항공기 제작 기술은 1mm를 1,000분해서 1개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기술이

라 할 수 있다. 항공기의 안전은 우리 생명을 담보하고 있어 직업적 마인드를 갖춘 항공 기술명장교육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고교교육에 처음으로 꿈의 금속가공기계인 5축 가공 장비를 도입하여 지금보다는 부가가치가 10~50배 이상 창출되는 기술명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생산에는 CATI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CATIA는 고교에서 접근이 쉽지 않지만 본교는 과감히 도입 적용하여 3D모델링 및 MCT 가공 등에 활용하여 고급기술을 가르쳐 익히게 하고 있다.

### 2.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창의와 도전정신교육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및 사천예술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 예술에 대한 소양을 기르며, 동아리 및 팀별 산악등산교육과 래프팅 교육 등으로 도전 정신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 적용교육과 발명교실 등 동아리 운영으로 기초직업능력 및 창의력을 배양하고 있다.

산업체의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교육으로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 3. 구성원의 협동과 책임완수 교육

체육 및 음악 동아리를 통한 구성원의 화합과 책임을 다하게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학습을 통한 구성원 역할과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도록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4.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교육

영마이스터(Young Meister)로서 지구촌시대의 리더의 첫 조건인 ‘100% 대화 가능한 실무영어교육’으로 최고의 항공기 제작기술과 공용어인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덧붙여 국제 매너교육과 기초직업능력 심화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 Ⅲ. 모두가 만족하는 항공기 제작 마이스터로 성장

마이스터인증제 실시와 능력 검정으로 우수유력기업에서 대졸 이상의 지위와 보수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 지구촌시대의 공용어인 영어 프리토킹으로 세계적인 CEO로 성장할 잠재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있고 창의적인 마이스터는 평생 직업이 보장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학을 졸업해도 배울 수 없는 기술명장교육, 프리토킹교육, 직업기초능력 교육 그리고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등을 실시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영마이스터(Young Meister)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시대를 넘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을 확신한다.

## 알찬 방학을 위한 학습전략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방학은 초·중·고교생들이 바쁜 학교생활에서 부족했던 학습을 보충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여 새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면 학생들과 부모들이 센터를 찾아온다. 이중에 하나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다. 방학은 방학 중 시간관리와 부족한 학습 투자, 그리고 다양한 체험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방학 중이라도 규칙적인 생활은 필수이다. 방학이라고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한 것 없이 방학이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된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 시험평가를 통해 과목별로 자신을 평가해 보고 미리 학업계획과 생활계획을 세워 놓아야 개학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자신이 목표로 한 학업 성취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공부 계획만 잔뜩 세워 놓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계획 실패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시간관리가 잘되지 않는 아이는 방학 동안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잘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시간관리법을 익히는 것이 관건이다.

### ◆ 초등학생

공부는 습관이다. 초등학교 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은 읽기와 쓰기이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게 하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책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해보자. 책임기를 싫어하는 학생에게는 그림이 많거나 만화로 된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요령이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직접 책을 골라 보게 해보자. 저학년은 재미있는 동화책이나 만화책, 고학년은 소설책과 위인전 등 다양한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 방학 중 부모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서점을 찾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수학은 기초가 부족하면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과목이다. 특히 4학년부터 내용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게임을 통해 숫자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다음 학년의 교과 내용을 무리하게 가르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학습부진이나 읽기, 쓰기, 생각하기 등에서 문제를 보인다면 학습량이 늘어나는 고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장견학, 자연관찰, 유적지 답사 등 야외 체험학습은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체험활동을 하기 전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 ◆ 중학생

중학교부터는 교과목도 많고 내용도 많아 효율적인 학습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중학생 정도 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공부하는 데는 동기가 중요하다. 방학 중 진로 탐색을 병행한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

단순 암기나 계산보다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요과목 즉, 단시일 내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수학은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보고 참고서나 문제집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응용력을 키운다. 어려운 문제는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시 한 번 풀어보면 좋다. 방학 동안 매일 일정량의 영어 단어와 숙어를 외워 어휘력을 늘려보자. 과목 별로 참고서 여러 권을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한 가지를 골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학생은 신문을 읽고 시사와 관련한 상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문학과 과학 서적을 읽은 뒤 요약 정리를 꼭 해두고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평가하는 훈련을 하면 분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 ◆ 고교생

국어, 영어, 수학 등 중요 과목을 점검하고 보충학습 중심으로 겨울 방학 공부계획을 세운다. 고교 2년생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 학습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입에 대비해 다양한 독서를 통한 비판적인 사고력과 가설 검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훈련을 해보자. 책을 읽고 저자의 논리적 전개를 검토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논리력과 분석력을 키울 수 있다.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과목의 중요도와 분량에 따라 학습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참고서 등을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평소에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어려운 책보다는 중학교 수준의 교재를 선택해 기본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하는데 선행해야 것이 시간관리, 자기만의 학습전략,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면 절대 남들보다 앞설 수 없다. 이번 방학은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채운다면 더 나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 보물섬 사관학교가 심어준 나라사랑



장 현 재

남해초등학교 교사

싱그러운 이슬이 발끝을 적신다. 수수한 짙레꽃의 하얀빛은 늦은 밤 개구리 울음소리와 함께 주위를 밝힌다. 푸름은 지쳐서 온 산하를 뒤덮고 그 사이 피어난 붉은 엉겅퀴 꽃은 먼저 가신님들의 혼일까?

아픈 사연이 많은 여름의 길목인 유월. 보물섬 아이들의 사관학교 병영체험이 열렸다. 사관학교는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사관학교와는 다른 지역 내의 예비역 장교 전우회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체험행사이다.

입소 첫날 준비해 준 버스에 나누어 타고 체험장으로 출발한다. 모두 호기심 어린 들뜬 표정이다. 캠프가 설치된 곳은 들 가운데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이다. 오래된 폐교를 고쳐 수련시설로 만들었지만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수련원 둘레는 지난봄 꽃을 피운 해묵은 매화나무들이 열매를 맺어 보시시 웃고 있다. 입소식이 시작된다. 군복을 입은 군인 아저씨들, 군수님을 비롯한 지역 각 기관대표가 모인 가운데 군악대의 국기에 경례 주악이 울린다. 아이들은 의식 내내 유니폼을 입은 군악대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입소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잔디운동장에서 군사용 텐트 설치 체험이 시작되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조별로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몰두하는 모습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한쪽에선 “아저씨! 할아버지” 등 현재 예비군 중대장을 맡고 계신 교관들을 부르며 도와 달라 한다. “밥은 언제 먹어요. 오후에는 무엇을 해요?” 등 여기저기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교관들은 진땀을 뺀다. 나름대로 오전활동이 재미있었는지 점심도 꿀맛이라며 남기는 것도 없이 깨끗이 먹는다.

오후 일정한 바래길 체험이 시작된다. 바래길은 둘레길, 올레길과 더불어 오래전 먹을 거리가 부족할 때 먼 마을에서 걸어 걸어서 해안가의 해초와 바지락 채취를 위해 다니던

길이다. 그런 삶의 인고가 묻어 있는 길이 요즘은 관광과 체험코스로 거듭나고 있다. 해안가를 따라서 경운기가 다닐 정도의 구불구불한 농로를 아이들은 재잘거리면서 간다. 보리는 황금색으로 물들어 서걱대고 인동초 꽃, 고들빼기 꽃들이 밭 언덕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바다와 육지의 조화가 너무나 예쁘다. PC방 게임기와 컴퓨터에 더 친숙한 아이들에게 자연과 벗하며 이 좋은 풍경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황홀하기만 하다.

몇 굽이를 돌아서자 휴식시간이다. 교관 아저씨가 조금 떨어진 섬을 가리키며 이전에 저곳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고정간첩으로 이곳이 남과 간첩들과 접선을 하는 길목이어서 모두 이주를 시켜 지금은 무인도라고 설명하자 아이들은 간첩이 무어나고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달린다. 그리고 바닷물에 발을 적신다. 마지막 도착지는 인적이 드문 모래사장이다. 자유롭게 가슴을 열어 거침없는 모습,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뭇 인근 마을 회관에 휘날리는 태극기에 금지가 느껴진다.

밤이 되었다.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물섬과 관련된 연상퀴즈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옛날 군수님이라면 너무나 어려운 분인데, 요즘 군수님은 모든 사람과 어깨를 같이하며 격이 없다. 드디어 기다리던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다. 어둠을 몰아내는 불빛을 보며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저마다 준비한 실력을 뽐내며 하루의 피로를 푼다. 시간이 지날수록 타던 불꽃은 사위어 솟으로만 남고 불꽃은 푸른빛을 띤다. 저 온도는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만큼.

둘째 날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병영체험이다. 군가와 함께 기상을 하여 체조를 한다. 간밤 노느라 잠을 설친 아이들은 하품을 한다. 그래도 오늘은 제일 재미있는 일이 있다며 언제 시작하느냐고 재촉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다. 주의사항과 지킬 일을 들으며 아이들은 긴장한다. 이제 모든 관리는 교관이 맡는다. 화기 위력 시험장으로 간다. 종알대던 아이들도 K1 소총의 총성에 귀를 막는다. 유탄 발사기를 떠난 포탄의 폭발소리에 겁에 질려 있다. 심지어 여학생들은 그냥 울고 있다. 전쟁이 나면 이 소리보다 더 크고 무서울 것이라며 전쟁은 싫다고 한다. 소대별로 나누어진 아이들은 서바이벌 사격, 방독면 착용, 소총 분해결합 체험을 하며 재미있어 한다. 꼬르륵! 배꼽시계가 점심때를 알린다. 오늘 점심은 군부대에서 직접 군인 아저씨들이 먹는 병사식 체험이다. 군대 밥은 흔히 짬밥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잘 먹는다. 식판마다 붙여진 이름표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한다. 학교 급식 때 좋은 식판과 수저를 잡을 것이라고 고르던 일이 부끄러워진 모양이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식판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둔다. 학교 조회시간

이나 체육 시간에는 줄도 잘 서지 않던 녀석들이 군부대 중대장의 통솔에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줄 서기와 질서를 잘 지킨다. 그래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마지막 일정이 남았다. 보물섬의 최남단 미조면의 레이더 기지에 간다. 아이들은 삼십여 분간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힘들어한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높은 곳에 세워진 기지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가슴을 후련하게 한다. 이곳은 곤충의 더듬이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우리 영해와 영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눈에 보는 곳이다. 아이들은 각종 전자기기에 눈을 떼지 못한다. 실시간 전해지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현대는 전자전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내려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린다. 잠깐의 휴식을 하면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라 하자 백 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 한두 명 정도 손을 들까 모두 군대에 갈 것이라 한다. 특히 여학생들은 여군이 될 것이라 하며 눈빛을 반짝인다.

과도가 출렁이는 보물섬 해안을 따라 수료식을 위하여 출발지로 돌아온다. 유월에 접어든 바다는 파스할 것으로 생각하며 2010년 3월 26일 서해의 차가운 바닷물에 북한의 어뢰에 의하여 산화해간 46인의 혼들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를 떠올린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뒤 연평도를 무참히 포격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생각하니 분노가 끓어 오른다.

수료식장에 아이들이 다시 모였다. 피곤한 모습들이 역력하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다고 하니 생기가 돋는 모양이다.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속이 조용하다. 뿔아떨어져 코를 고는 아이들도 있다.

보물섬 사관학교 체험. 비록 어리지만, 이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나라와 우리 고장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평소 버릇없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나무랐지만 이런 기회를 맞아 새롭게 태어나고 마음을 바르게 함을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 밝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소중한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남겨줄 것은 굳건한 안보의식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되새겨본다.



## 아침이 즐거운 아이

류 수 정

마산 광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

“한 마리 꼬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요즘 우리 둘째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노래인가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저 노랫 들으며 우리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우리 둘째는 광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세(만4세)반에 올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부끄럼이 많아 노래 한번 시켜도 잘 하지 않던 아이라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론 변해가는 딸의 모습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각 깨어나기 힘들어하면서도 “그럼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말자.”라고 떠보는 엄마 말에 “싫어”하며 벌떡 일어나는 우리 딸, 속으로 한 번 웃는다. 유치원이 가는 길이 즐거운 우리 딸을 보며 다시 한 번 광려병설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우리 딸은 행운아란 생각을 해보았다.

사실 난 우리 광려병설유치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남다르다. 우리 첫째는 4살, 5살 때 인근 사립유치원에 다니다가 6살에 병설유치원으로 옮겼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 방식과 그 외 여러가지가 우리 아이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통 유치원의 여러 행사에 참석해 보면 여기 저기 전시해 놓은 아이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난 무척 놀랐다. 교실 벽에 걸려 있는 또박또박 써 놓은 동시 한편을 가리키며 선생님은 5살 아이가 지었고 직접 쓴 거라며 자랑했다. 그리고 복도 벽에 걸린 한 편의 독서 감상문 속의 장문의 글과 그림, 그건 7살 아이가 한 것이라고 했다. 보통 5살, 7살 또래 아이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었기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라면 모를까 공감하기가 힘들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으며 부모님들의 아이도 우리 유치원에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무시한 교육이며 학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로 밖엔 생각할 수 없었다. ‘걸치장에 치중해서 알맹이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물론 사립유치원을 폄하할 의도는 없다. 내

가 경험하고 본 것이 사립유치원의 전부는 아닐 것이며,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방식에 만족하고 높이 평가하는 엄마들도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신문에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교사의 질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힘든 임용고시를 거쳐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통과한 선생님들이었다. 덕분에 더더욱 내 결정에 믿음이 갔다. 그래서일까? 병설유치원으로 옮긴 수줍고 말 없던 우리 첫째는 점점 쾌활하고 즐거운 아이로 변해 갔다.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모습도 묻혀가고 점점 자신감을 얻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일 년 내내 유치원 가기 싫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큰 아이의 눈에 펼 만한 변화에 광려병설유치원에 대한 나의 믿음은 확신으로 변해버렸다.

큰 아이가 7살 되던 해 아쉽게도 병설유치원을 떠나게 되었다. 남편의 회사일로 스리랑카와 호주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1년은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 해는 호주에서 지냈다. 처음 스리랑카에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다가 뒤늦게 국제 학교에 들어가 석 달 정도 다녔었다. 그 때 둘째는 4살 최고 어린 Nursery반에 다니게 되었다. 영국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라 모든 시스템이 영국식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스리랑카 사람이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커다란 귀걸이를 한 아주 멋쟁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런 복장으로 아이들과 지내기가 불편하진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4살이면 정말 이제 기저귀 겨우 떼 아이들이다. 가르침보다 보살핌이 더욱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풀렸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안거나 씻기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만약 아이가 옷에 오줌을 싼다면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던 것이었다. ‘여기 선생님은 우리나라 선생님들보다 참 편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느껴졌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초등학교 병설이 아니라 1학년 밑에 한 학년이 더 있는 경우와 같아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일과운영도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동일했다. 둘째가 어려서 Child Care나 Preschool에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냈다. 호주 국민이 아니었기에 비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교민들과 어울리면서 호주의 유치원 교육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호주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냉정하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안아주지 않는다. 그저 “울지 마라, 엄마 오실거야”라고 말

할 뿐이다. 아이를 잘 안아주지 않는다. 성추행과 같은 것에 민감한 문화라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에 대한 신체접촉을 가급적 하지 않기 때문이란단.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선생님을 엄마와 같이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사와 아이들 간에 교감이 없어 보였다. 한 Child Care의 한국인 원장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호주의 유아교육 스타일은 아이들과 깊은 교감은 없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로 기르는 데는 좋다고 한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일까? 그래도 우리나라 유치원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에 관한 문외한인 나이지만 선생님과의 스킨십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넘치는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어린 내 아이가 엄마와 같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광려병설유치원이 정말 좋다.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가지 않는 교육, 아이들의 눈높이 맞춤 교육, 최고의 자질을 자랑하는 교사, 아동 편의중심 교실환경, 질 높은 식사, 다양한 체험활동, 선생님들의 애정과 노력, 우수한 학교 시설, 훌륭한 주변 시설, 깨끗한 자연환경, 안정된 교육과정 운영, 짜임새 있는 종일반 운영, 친절하고 편안한 선생님 등 우리 유치원의 자랑거리는 끝이 없다. 이렇다보니 우리 유치원이 인기가 넘쳐 올 해 원아모집 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해야 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오빠에 이어서 광려병설유치원에 들어온 우리 딸을 비롯해 모든 광려병설유치원 친구들은 정말 복이 많다.

아침이 즐거운 아이들이 가는 곳! 엄마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곳!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한 곳! 그 곳이 바로 우리 광려병설유치원입니다.



# 하늘

송 일 근

상일초등학교 2학년 4반

하늘 하늘 파란 하늘  
바다같이 넓은 하늘  
파란하늘은 아빠 품 같아.

하늘 하늘 주황 하늘  
해가 질 무렵 피어나는 하늘  
주황 하늘은 수줍게 웃는 엄마 얼굴 같아.

하늘 하늘 하얀 하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하늘  
하얀 하늘은 동생 손 같아.

하늘 하늘 검은 하늘  
해지고 어두워져 검게 변한 하늘  
검은 하늘은 검게 그을린 내 얼굴 같아.

작품명 : 비상



---

---

---

## 박 재 철

- 현) 함안 중앙초등학교 교사
- 제57회 교육주간 사진 공모, 입선, 2009, 교총
- 제59회 교육주간 사진 공모, 동상, 2011, 교총
- 불꽃낙화 사진 촬영대회 최우수상, 은상
- 대한민국 곤충생태체험전 사진전 참가, 2006, 서울 코엑스
- 교원에능경진대회 2등급
- 제1회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진 공모전, 은상, 아름다운 교육신문 [저서]
- 어린이 다카교실 일공육사, 2008

#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

도민 여러분!

오늘은 TV를 잠시 끄고  
가족 독서 시간을  
가져 보는건 어떨까요?



- 책 속에 꿈 책 너러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여는 희망경남
- 펼쳐요! 책속 행복 누려요! 행복 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거월에 미래를 내품에

‘책 읽는 경남’

도민 모두 가 참여 합니다.